

교합의 개념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보철학 교실

김 영 수

약 100년전부터 학문적 연구의 Target 이 되기 시작한 이후 1950년대에서 교합의 개념이 체계화 되기 시작하였으나 교합관련 요소 중의 단편적 측면의 일부가 강조되어오면서 그 자체에 대한 인식 이외에도 진단 및 치료법에 혼란이 있었다고 본다.

1970년대에는 해부학을 비롯해서 교합학의 뼈대에 해당되는 Border movement 수준의 연구에서 근육을 이루어 가는 시대에 이르렀고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예방적인 측면이 더 강조되었으며 1980년대말에 이르러서는 내장학, 신경혈관학에 해당하는 부분이 정돈되어 본격적인 치료학의 시대에 접어들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 교합의 근본 개념과 거기에서 이어지는 치료과정에 도달되기까지는 다수의 열쇠가 필요한 형편이다.

열쇠의 수를 줄이기 위한 기초가 개념이라고 보아 관련내용을 토의해보고자 한다.